

탑골공원 설계¹⁾

김성균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Design of Pagoda Park, Seoul

Kim, Sung-K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design proposal was presented to a design competition for renovation of the Pagoda Park, located in Chongro-2ga, Chongro-gu, Seoul, where the first “Manse”(hurrah) Movement fighting against Japanese colonization, broke out on March 1st, 1919. The park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first modern park in Korea also.

The objectives for the design were to make a sacred place to commemorate the 3.1 “Manse” Movement, to preserve and symbolically memorialize historic remains of the old “Wongaksa” Temple, and to provide natural and rest areas for citizen.

For the space composition, three axes symbolic of, ‘freedom and independence,’ ‘mercy,’ and ‘nature,’ were created. For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axis, existing facilities, such as statues and monuments related to the 3.1 Movement, were relocated centering around the octagonal pavilion,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movement, to give order of the site.

For the mercy axis, symbols of traditional temple structures, such as, ‘Iljugate’ - ‘Pian bridge’ - ‘Chonwang gate’ - ‘Haetal gate’ - Pagoda - Buddhist sanctum, were created to symbolize the temple remains and placeness. For the nature axis, tree groves, walking trails, and rest areas for citizen were provided around the site. As a whole the design provided structural orders from secular spaces outside to sacred spaces inside.

Key Words : Pagoda Park, Urban Park, Historic Park, Park Renovation

I. 서론

탑골공원은 고려시대 사찰인 원각사 석탑 및 비가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사적지(사적 제 354호)이며, 3.1 운동의 만세가 시작되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공원으로 알려져 있어서(윤국병, 1978; 강신용, 1995) 조경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이다.²⁾

그동안 탑골공원에는 독립운동 관련단체, 불교, 천도교 등 여러 관련 단체들이 설치한 갖가지 기념 시설물들이 난립해 있다. 특히 근래에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노인들의 공간이 되어 다른 층의 시민이 문화재를 관람하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문화재 등 역사적 상징물을 중심으로 공원 내 인위적 사향을 정비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강화하고 성역화 하기 위해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본 설계안은 현상공모에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II. 대상지 현황

1. 위치

대상지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1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9,599m²(5,939평)으로, 동으로 상업지역, 극장가, 종묘 및 종로 3가 전철역으로 연결되었으며, 서로는 도로 및 인사동, 종각 전철역으로, 남으로는 종로 및 삼일로로 연결되며, 북으로는 낙원상가 및 안국 지하철역으로 연결되고 있다. 주변에 전철역이 가까이 위치해 접근성이 높으나 주변에 고층건물로 둘러싸여 사



그림 1. 1900년대의 탑골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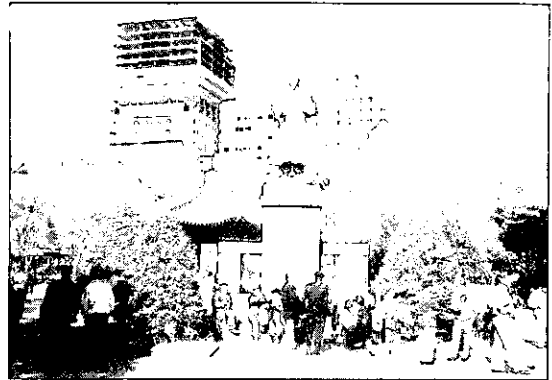


그림 2. 현재의 탑골공원

적지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대상지 환경분석

대상지내에는 3.1 독립선언비, 3.1정신 찬양비, 한용운 시비, 손병희 동상, 탑골공원 사적비, 팔각정 등 3.1 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 있으며, 원각사지 10층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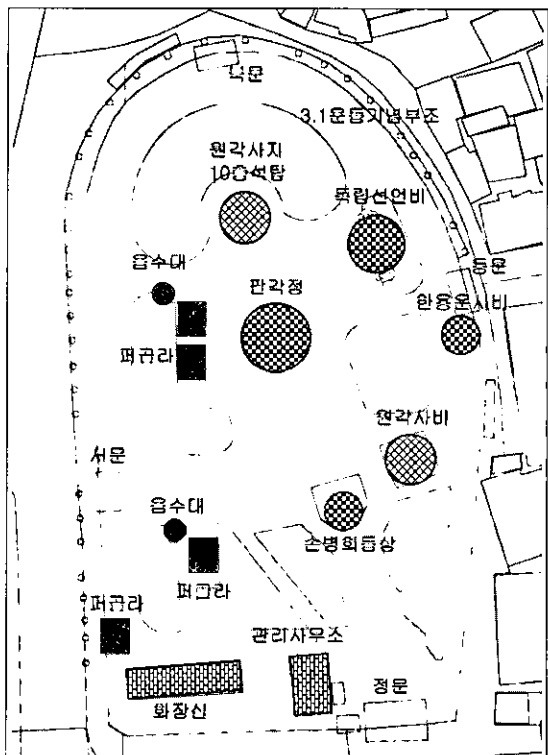


그림 3. 현황 및 시설물 분포도

(국보 제2호), 원각사비(보물 3호) 등 원각사 관련 시설물과 기타 편의시설 및 화장실이 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의 위계 없는 배치로 인해 공간 및 시설의 활용도가 낮으며, 종로의 길가에 위치한 화장실은 지나치게 돌출되어 시각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

주요 식생은 느티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플라타너스, 메타세쿼이아, 홍단풍, 은행나무, 소나무, 주목, 잣나무, 향나무 등이며 주로 인공으로 식재되어 있다.

주요 이용행태로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무료급식, 이발, 수지침, 안마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간을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어 일반 관람객이 문화재 관람을 하기에는 어색한 분위기이다.

III. 설계의 목표 및 기본구상

1. 설계의 목표 및 방향

- 1) 장소성 : 3.1운동 관련시설들에 질서를 부여하고, 자연스럽게 엄숙한 분위기 조성
- 2) 역사성 : 원각사탑, 비 등 원각사에 관련된 시설들에 속세에서 성의 공간으로 사찰의 위계적 공간 전이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에 질서를 부여
- 3) 민주성 :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3.1운동 성지를 참배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공간조성
- 4) 친환경성 : 고층의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적 공간조성

2. 기본구상

위의 설계목표를 달성하고, 탑골공원의 기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개의 축을 설정하였다.

1) 자유독립의 축(3.1운동의 축)

- (1) 남서쪽 모서리의 진입공간으로부터 팔각정을 연결하는 직선의 축으로 팔각정을 초점이 되도록 하고 외부로부터 성역으로의 위계 부여
- (2) 팔각정을 중심으로 주변에 3.1운동과 관련된 시설을 배치시켜 공간의 질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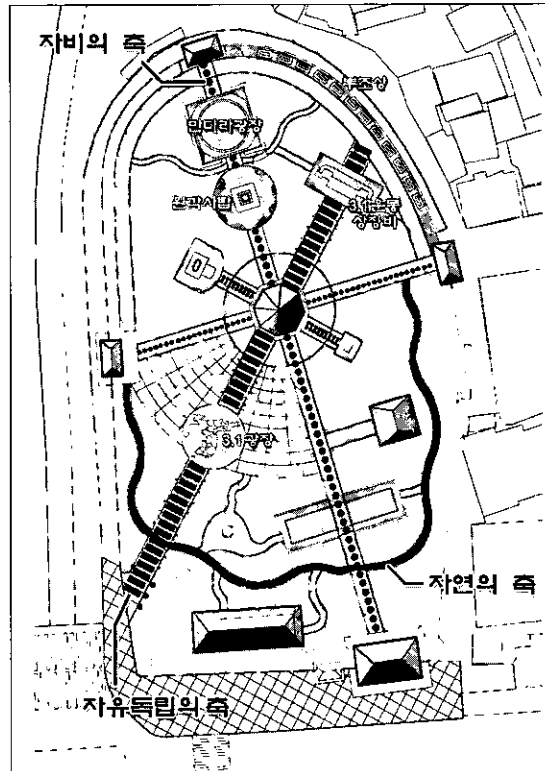


그림 4. 축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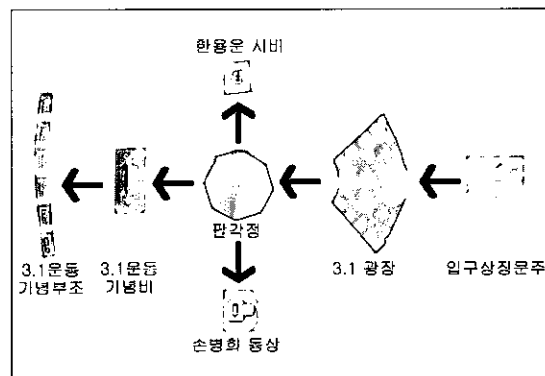


그림 5. 자유독립의 축

2) 자비의 축(원각사의 축)

- (1) 정문 - 팔각정 - 원각사탑을 잇는 사찰의 축으로 원각사와 관련된 시설들을 연계
- (2) 전통사찰의 일반적 구성인(한국조경학회, 1996: 김원용 외 1983) <일주문 - 피안교 - 천왕문 - 해탈문(불이문) - 탑 - 법당>을 축선 상에 상징적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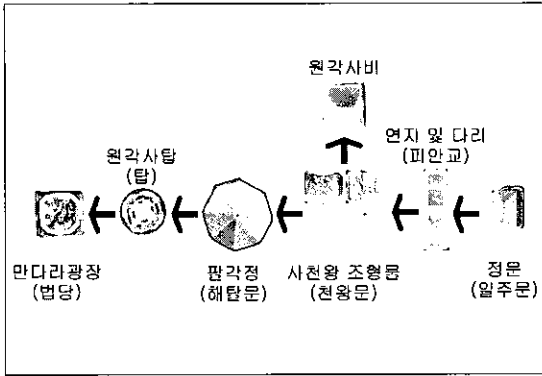


그림 6. 자비의 축

3) 자연의 축(도심의 작은 숲)

(1) 공원의 외곽을 연결하는 녹지공간을 배치하여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기념시설물들의 배경이 되게 함.

(2) 숲 속에는 순환 산책길을 조성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공간체험을 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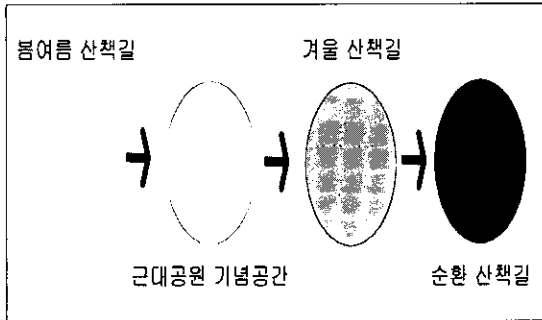


그림 7. 자연의 축

IV. 기본계획

1. 공간이용계획 및 동선

1) 팔각정의 동서축을 기준으로 북쪽은 비교적 정형적으로 배치하여 성(聖)의 공간으로서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쪽은 성(聖)의 공간에 이르는 전이공간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의 자연 친화적 공간 조성

2) 주진입 동선은 종로3가 사거리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한 "자유독립의 축"으로 하고 기존 정문의 "자비의 축"을 보조동선으로 하며, 각 축은 "자연의 산책길"

에 의해 연결

2. 식재계획

- 1) 기존의 고목들은 최대한 그대로 활용
- 2) "자유독립의 축"에는 비교적 정형적이며 팔각정에 조화되고 축 형성에 유리한 느티나무 식재
- 3) "자비의 축"에는 부처의 상징인 피나무를 식재하여 상징적 축선 강조
- 4) 주변의 고층건물을 시각적으로 차폐하기 위해 적소에 큰나무 식재
- 5) 회색의 동상 및 기념비 주변에는 이들을 돋보이도록 상록수 식재

3. 포장 및 시설물 계획

- 1) 자유독립의 축은 우리나라 주요 돌인 화강석을 포장하여 한민족의 굳건한 이미지를 상징토록 하고, 색채적으로 검은색의 "자비의 축"과 대비
- 2) 자비의 축은 전통을 포장하여 전통사찰의 분위기를 갖도록 함.
- 3) 자연의 축의 산책로는 마사토 포장으로 하여 숲속의 길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함.

4. 조명계획

- 1) 야간에 주요시설물 및 축선을 적절히 조명하여 엄숙하고 우아한 야간공원으로 만들며, 야간의 이용을 높임.
- 2) "자유독립의 축"과 "자비의 축"은 바닥조명을 하여 축선을 강조
- 3) 원각사 탑, 팔각정, 동상, 기념비는 상향조명을 함
- 4) 수형이 좋은 고목들은 상하향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공원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

V. 공간별 세부계획

1. 자유독립의 축

- 1) 3.1운동 상징문 및 진입공간
 - (1) 삼일운동의 축의 진입공간으로 3.1운동 사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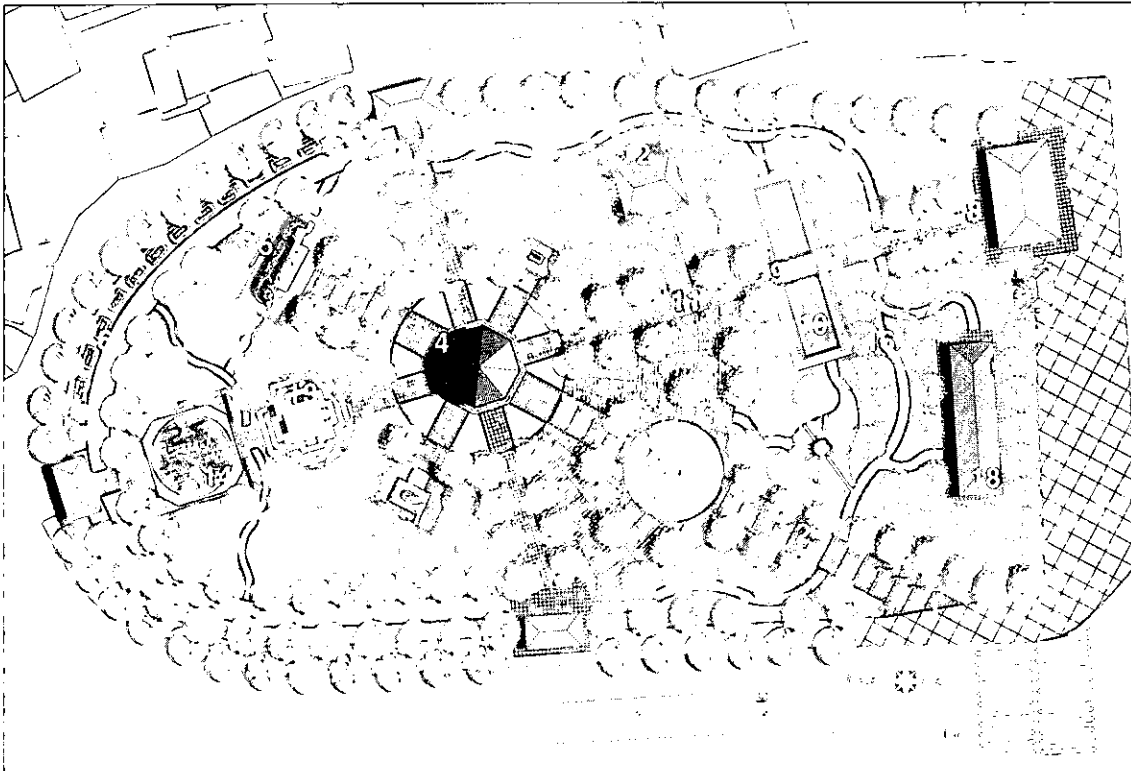


그림 8. 기본계획도

범례 : 1: 31운동 상징문주; 2: 33인의 상징조형물; 3: 31광장과 31운동 지도판; 4: 팔각정; 5: 31운동 기념비; 6: 31운동 기념부조; 7: 송병희 동상, 한용운 시비; 8: 일주문; 9: 피안교; 10: 연지; 11: 천왕문 상징조형물; 12: 원각사비; 13: 원각사탑; 14: 만다라광장; 15: 봄, 여름의 길; 16: 가을, 겨울의 길; 17: 최초 근대공원 기념공간; 18: 관리사무소(화장실)



그림 9.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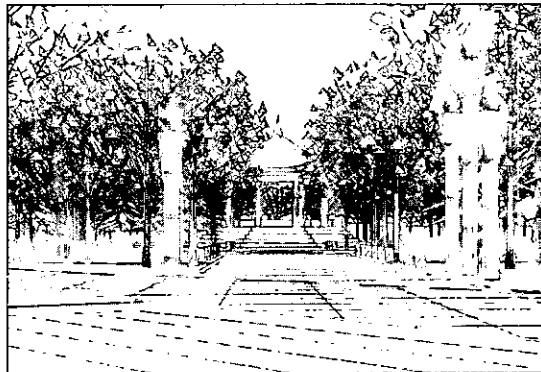


그림 10. 진입공간 및 입구 상징물

의 진입을 알림.

(2) 31운동시 사용했던 햇불을 형상화한 입구 상징물을 설치하여 꺼지지 않는 3.1독립정신을 상징화

(3) 입구 상징물은 좌측 1개, 우측 3개를 배치하여

3.1 정신을 상징

2) 전이공간과 33인의 상징조형물

(1) 팔각정과 3.1운동 기념비에 이르는 축으로 화강

석 포장

(2) 좌우에는 3.1운동 발단이 된 33인을 상징하는 낮은 조형물을 33개 배치하여 축을 강조하고 의자 대용

3) 3.1운동광장

(1) 팔각정 앞에서 각종 기념 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개방공간

(2) 최초 근대공원을 조성했을 시의 형태인 방사형을 도입

4) 3.1운동 중심지 도판

광장의 중심 축에는 3.1운동이 일어난 도시를 표시한 당시의 대한민국 지도를 도판으로 제작 부착하여 3.1운동의 전국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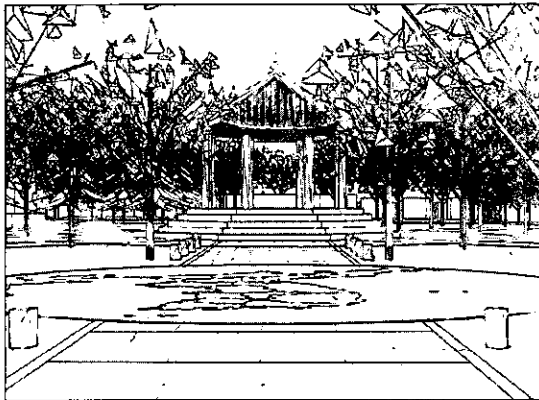


그림 11. 3.1광장 및 중심지 도판

5) 팔각정

(1) 3.1운동 선포를 한 중심적 사적지로 현 위치대로 존치

(2) 공원의 두 축에서 시각적 종점이 되도록 공간 구성

6) 3.1운동 기념비

(1) 3.1운동을 기리는 기존의 기념비로 팔각정을 마주보도록 재 위치시켜 3.1운동 축의 종점이 되게 함

(2) 팔각정을 중심으로 주축에 직교하여 기존의 손병희 동상과 한용운 시비를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일체감을 유도

7) 3.1운동 기념부조

3.1운동의 여러 상황을 그린 부조작품으로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시켜 3.1운동 축의 종점이 되게 함.

2. 자비의 축

1) 일주문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현재의 입구문을 그대로 유지 하되 보수시 일주문으로 교체

2) 피안교와 방형 연지

(1) 연지를 입구에서 좌우로 조성하고 주위에는 낮은 화강석을 배치하여 쉬면서 연꽃을 감상할 수 있게 함.

(2) 연지 사이에는 경내에 보존되어 있는 다리 난간을 활용한 피안교 상징다리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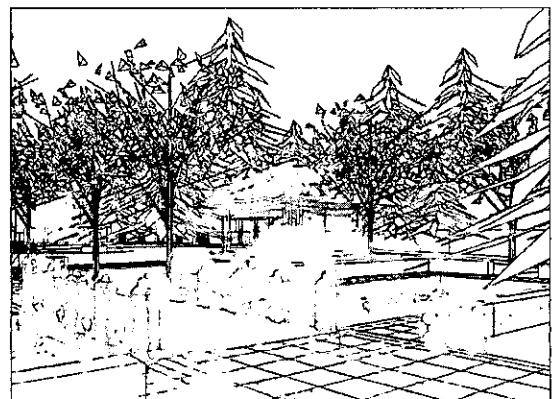


그림 12. 피안교와 방형 연지

3) 천왕문 상징조형물

(1) 천왕문은 불국토를 지키는 동서남북의 사천왕을 모시는 문

(2) 사천왕의 네가지 기물인 칼, 삼지창, 용, 비파를 조각한 조형물을 동, 서, 남, 북 방향으로 세워 천왕문을 상징

4) 팔각정과 원각사탑

현재의 위치에 보존하며 팔각정은 통해 탑으로 이르는 사찰의 누각공간 및 해탈문(불이문)을 상징하며, 원각사탑은 자비의 축의 초점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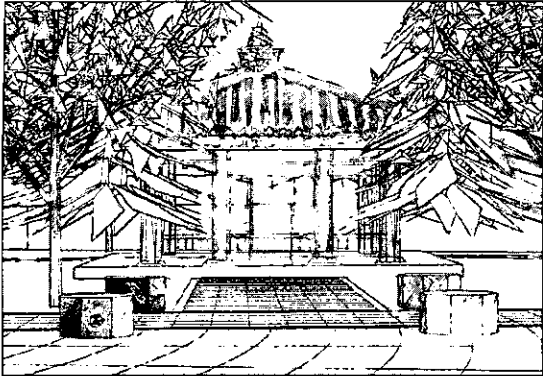


그림 13. 천왕문 상징조형물과 원각사비

5) 만다라광장⁵⁾

(1) 원각사 탑의 북쪽에 위치하는 정사각형 공간으로 원각사의 금당터를 상징하며 바닥에는 만다라 문양 조각

(2) 만다라 광장의 주변에는 원각사 탑의 부조를 원형대로 제작 전시하여 유리창으로 가려서 접근 할 수 없는 탑의 부조내용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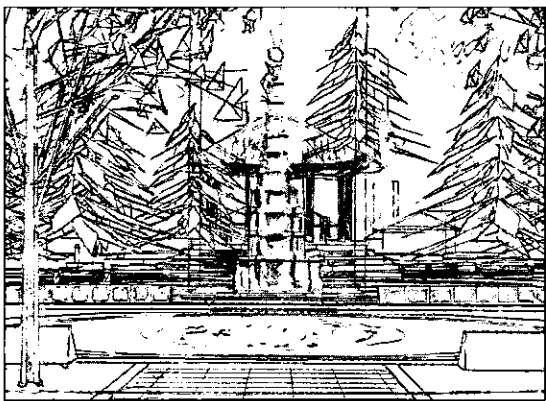


그림 14. 원각사탑과 만다라광장

3. 자연의 축

1) 숲과 산책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숲 및 산책로 조성

(1) 봄, 여름의 길 : 봄과 여름에 꽃이 피는 화관목을 식재하여 화사한 봄, 여름을 느끼게 함.

(2) 가을, 겨울의 길 : 가을과 겨울의 아름다운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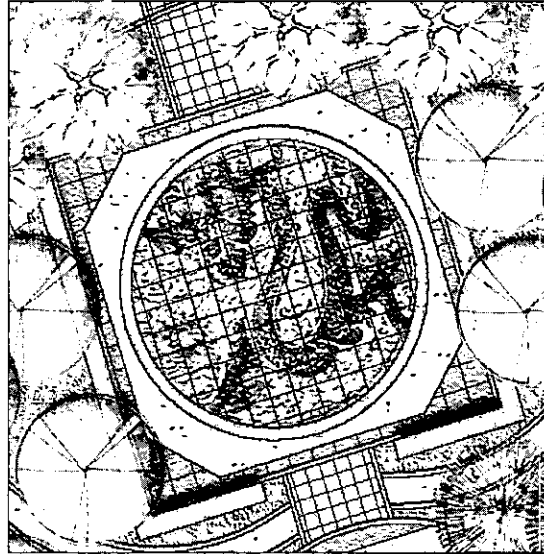


그림 15. 만다라 광장

풍 및 열매들을 감상할 수 있는 교목 및 관목을 식재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겨울에 삭막하지 않게 함.

2) 최초 근대공원 기념공간

최초 공원조성시의 평면도 부착한 기념비를 설치하여 최초 근대공원의 역사적 상징성 부여



그림 16. 최초 근대공원 기념공간

VI. 결론

본 설계안에서는 전통사찰, 3.1운동, 최초 근대공원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이에 따른 다양한 시설들이 난립한 탑골공원에 공간적 질서를 부여하여 각각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주고 노인 계층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공간을 여러 계층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탑골공원은 서울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원이다. 이에 대한 재정비는 이러한 장소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담아 그 장소적, 역사적 의미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설계로 인해 공간의 질서에 대한 또 다른 혼란이 오지 않아야 한다.

탑골공원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노인들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재정비로 인해 이들의 보금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시에는 탑골공원의 원래의 의미를 되찾는 동시에 노인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약 10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 주어진 현상공모로 인해 충분한 디테일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앞으로 현상공모는 참여자들이 설계안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고, 정보 및 시간에 있어서 참여자간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주 1. 편집자주 : 이 설계작품은 2000년 12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 "탑골공원 성역화를 위한 공원재정비" 설계현상공모에서 우수작으로 당선된 작품이다.

주 2. 조선 세조 13년에 원각사로 건립하였던 것을 고종 34년인 1897년 도지부 고문인 영국인 브라운에 의해 공원으로 조성되어 1920년에 공원으로 개원하였다. 1992년 5월 28일 공원 명칭을 파고다 공원에서 탑골공원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 3. 일주문은 "한마음(一心)"을 뜻하며, 이것은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념인 평등을 나타내며, 또한 인간의 속세와 극락세계 즉, 부처의 세상을 구별짓는다는 의미를 갖기도 함.

(<http://www.buddhapia.com/buddhapi/kor/hanbul/culture/art/m-2.html>)

주 4. 피안교란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는 다리로서 속세와 부처의 세상의 경계를 상징함.

주 5. 제불보살과 화엄성중이 존재하는 성역공간으로서 우주질서의 자체이며, 그 축소라고 하며, 우주에너지의 축소판이며 질서 정연함 속에서 뿔어져 나오는 생의 본질적인 힘의 원천이라는 만다라를 상징함.

인용문헌

1. 강신용(1995)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도서출판 조경.
2. 김원용 외(1983) 한국의 미: 사원건축. 서울: 중앙일보사.
3. 윤국병(1978) 조경사. 서울: 일조각.
4. 한국조경학회(1996) 동양조경사. 서울: 문운당.

원고접수: 2001년 4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5월 10일

무심사